



Student Creativity Korean



수필 '신들의 놀이터, 광안리, 시 '천 년의 사랑, 광안대교' : 한용운의 '명사십리'의 형식을 차용한 창작

올 여름 6월, 초등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한국을 방문했다. 2주 간의 격리가 풀리자마자 가장 먼저 찾은 광안리 바닷가. 수평선 끝에 기대 앉은 바다의 신이 다리를 뻗은 것처럼 웅장하고 긴 '광안대교'가 보였다. 끝도 없이 펼쳐진 바다와 햇볕에 하얗게 부서지는 모래사장을 보며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 들었다. 일 년 간 많은 일이 있었다. 초등학교 졸업시험과 졸업, 무엇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나의 6학년은 디스토피아 소설에나 나올 법한 '온라인 수업'을 하며 지나갔다. 집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길어져서인가.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바다가 보고 싶어서 엄마에게 광안리에 먼저 가자고 즐랐다.

이상하다. 겨우 일년 만인데 낯선 이유는 무얼까? 해변가를 따라 옹기종기 모여 있는 횡집과 카페들, 식당들도 거의 그대로였다. 바닥에 밟히는 보드라운 모래의 감촉이나 갈매기 울음소리도 그대로인데. 양말을 돌돌 감아 넣은 운동화를 양손에 들고다니다 정답을 찾았다. 내가 느끼는 낯선 감정의 원인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내가 훌쩍 커버린 탓이다. 키가 큰 건 당연하고 파도처럼 흔들리는 내 마음이 나 자신도 낯설기 때문이다.

엄마와 나, 남동생은 바닷가를 산책하다 배가 고파서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마스크를 쓰고 있다 식사가 나오자 조심스레 눈치를 보며 밥을 먹는 사람들을 보니 기분이 좋지 않았다. 언제쯤이면 이 낯선 바이러스가 사라질까. 식사를 마치고 밖에 나오니 모래 사장 위에 드론 몇 대가 날아다녔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형들이 드론을 날리고 있었다. 자유롭게 날아가는 드론을 따라 내 마음도 훨훨 날아가는 기분이 들었다. 아무데서나 찍어도 사진이 잘 나왔다.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2년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친구와 우연히 만나 신나게 논 기억이 난다.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친구들과 광안리에서 만나기를 기대해 본다.



밤이 되니 하얗고 노란 전등이 하나씩 켜졌다. 불을 밝힌 광안리는 마치 다른 장소처럼 변했다. 해변가의 광안대교는 한 폭의 그림처럼 예뻐다. 불빛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강아지의 눈망울처럼 반짝였다. 반짝이는 불빛을 보며 우리는 20분쯤 걸어 전철역에 도착했다. 전철역 계단을 내려가기 전에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조그맣게 혼잣말을 했다.

‘광안리야, 너무 많이 바뀌지는 마. 내년에 다시 만나자.’

수평선에 기대앉은
신이 긴 다리를 뻗은 곳

철썩철썩 물의 파동이 파랑게 부서지는 바다 광안리
머리 위로 움직이는 구름 따라
시간을 건너는 너는
한폭의 그림이 되고

깜깜한 밤이 되면 광안대교는
반짝반짝 건물과 빛나고
사람들의 인적은
바다의 파도 소리와
함께 조용해진다

삼삼오오 모여있는 사람들
반짝반짝 빛이 나는 모래
백사장에 서서 나는
친구들과 추억을 떠올린다

Park Seungheon-7R



작가가 선택한 언어의 개념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 : 서경식 ‘디아스포라 기행’에서 작가가 사용한 언어의 이해와 분석을 중심으로

재일 작가 서경식은 ‘디아스포라 기행’을 통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이나 단어가 가진 문제점들이 단순히 언어적인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때로는 편협하고, 때로는 왜곡된 문제들이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제시하며, 특히 우리의 비극적인 디아스포라 역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이해시킨다. 작가의 가치관과 작품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몇몇 개념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모어와 모국어

모어는 사람이 태어나 처음으로 말하는 언어를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국어는 그 사람이 태어난 곳의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모국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했을 당시에 태어난 조선 사람들은 한국어를 모어로 쓰고 있었지만, 일제가 그 모어를 금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본어 사용을 강조했다. 우리가 간혹 모국어를 모어와 동일하게 여기고,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이 개념들이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의미의 이해가 왜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 속의 붕어

이 글에서 작가는, 일제 강점 당시 일본을 수레바퀴라고 표현하고 그들이 지나간 자국에 고인 물을 조선의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한국은 운이 안 좋게 그 수레바퀴 안에 끌려 들어간 것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매우 훌륭한 비유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간 슬픈 흔적들, 즉 수레바퀴의 자국에 고인 물과 같은 상태를 조선이 처했던 상황으로, 그리고 자기와 같은 디아스포라들을 붕어의 처지로 이야기하는 부분 역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 작가가 일본을 벗어나 해외로 많이 떠도는 이유가 숨을 쉬기 위해 붕어가 물 밖으로 튀어 오르는 것이라는 비유와 그럼에도 계속 일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은 살기 위해 고인 물일 지라도 선택해야 한다는 몸부림이라는 설명 역시 훌륭한 언어적 표현이라는 점을 알게 한다.

붉은 하이힐

지금의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를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렵지만, 예전에는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로 입국하는 과정이 일본인들과 매우 차별적인 시절이 있었다고 한다. 한국인과 일본인이 캐나다에 입국하는 과정이 매우 달랐음을 설명하며, 그보다 더 가난한 국가 출신의 한 가족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비자를 계속 기다리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그들에게 출신 국가는 존재하고 그것이 또 족쇄로 작용하지만, 정작 디아스포들은 그 과정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간다. 검은색 부르카 사이로 보이는 빨간색 하이힐이 보여주는 이질감이 갈 곳을 잃은, 정체성도 희미해지는 디아스포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디아스포라의 모습과 연결되어 씁쓸함을 느끼게 한다.

이 책에서 작가는 자신의 선택이 아닌, 과거에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그들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먼 거리에 가 있는 것이 아닌, 언어와 문화의 혼란을 느끼고 정체성의 문제를 말할 수밖에 없는지 보여준다. 그것이 왜 그러한지를 단순히 설명으로 제시하기 보다 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언어가 가진 개념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왜 중요한지를 잘 확인시켜 주었다.

Oh Yunsung-11R



고전의 문학적 장치와 고전 읽기의 의미적 접근 : 김영하 '읽다'를 바탕으로, 고전의 문학적 장치 분석을 통한 고전의 가치와 그 읽기의 중요성 고찰

‘읽다’는 작가 김영하의 문학적 비평에, 문학적 장치들을 사용해 자신이 읽게 된 고전 책 ‘오디세이아’의 후기와 고전책에 대한 생각을 덧붙여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현대의 사람들의 책을 읽는 횟수는 예전에 비해 현저히 줄었다. 전자기기의 발달로 인해 다른 형태의 오락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은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고, 특정 취향을 타깃하는 마니아층의 책도 많이 출간되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고전에서부터 넘어온 ‘고전책’들은 사람들, 특히 젊은층의 독자들이 많이 찾지 않는 책들이 되었다. 작가는 현대 사람들이 더 이상 많이 찾지 않는 고전책들을 소개하고 흥미로운 비평과 감상을 더하여 독자들에게 고전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동시에 이 책들의 독서를 권장한다. 작가가 소개하는 고전과 그 문학적 장치들이 어떻게 이 텍스트의 효과를 극대화시켰는지 분석적으로 접근하여 고전의 가치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작가는 자신이 어렸을 적에 읽었던 ‘오디세이아’의 축약본에서 나온 플롯에 숫자들을 사용해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독자들이 이 문장을 읽을 때 혹시라도 있을 내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배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작가는 이 숫자들의 사용 이전에 “호메로스가 사려 깊게 배치한 플롯을 무시하고.....”라며 어린이용 축약본들의 엉성함을 비판했는데 이러한 어린이 축약본들에서 나오는 플롯들을 어린이에게 설명하듯이 숫자를 불힘으로서 독자들에게 축약본들의 단순함을 보여준다. 즉, 작가는 축약본의 플롯을 나열시킴으로 독자들이 축약본이 원작의 매력을 얼마나 드러내지 못했는지 보여준다. 그리고 나열된 축약본의 플롯 바로 다음 ‘오디세이아’의 진짜 플롯을 제시하며 축약본이 가진 플롯의 단순함과 원작의 정교함을 대비시켜 독자들에게 원래 이야기에 흥미와 궁금증을 갖게 한다.

작가는 또한 한국인 독자들에게 다소 생소하게 다가올 ‘오디세이아’의 주인공 오디세우스를 대신해 한국의 위인, 이순신 장군을 사용함으로써 독자들이 자신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갔다. 작가는 ‘오디세이아’의 작가 호메로스가 사용한 독창적이었던



스토리텔링의 방법을, 한국사람들이라면 익히 알고 있을, 이순신 장군과 그의 일대기를 통해 설명한다. 이렇게 이순신 장군을 ‘오디세이아’의 주인공 오디세우스를 대신해 사용해 호메로스의 글쓰기 방법을 설명함으로써, 작가는 당시 호메로스가 어떠한 심정으로 오디세우스의 연대기를 소설에 적용하였을 지를 문학적 장치의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당시 그리스인들에게 오디세우스는 매우 유명한 이야기였기에 그들이 언제나 듣는 진부한 이야기가 아닌 더 독창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로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문학적 장치로서의 구성과 고민이 당시 독자들에게 익히 알고 있는 고전임에도 불구하고 독창성을 가진 글로 인식될 수 있었다. 이러한 ‘오디세이아’에 대한 설명과 분석을 통해, 작가는 호메로스 글쓰기의 독창성, 그리고 고전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표현적인 측면에서, 작가는 인칭대명사와 의문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글의 흥미와 몰입을 높여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작가는 첫 단락에서 일반적 독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대신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는 동시에 작가 자신도 일반 독자로서 가졌던 일반적 질문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독자에게 공감성을 높이고, 보다 고전에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배려의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오디세이아’의 독창성에 대한 자신의 비평에 대한 신뢰도를 갖게 하는 효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오디세이아’의 맥락의 설명이 다른 설명으로 넘어갈 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에 대한 예고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 역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다. 이러한 글쓰기 방식과 고전에 대한 비평 및 분석적 설명은, 고전의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또 그것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글쓰기 방식의 의도의 중요성과 독자의 읽는 행위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Lim Leehyun-12T



현대 사회에서 'Reading'의 가치와 중요성 : 송영숙 *Speech* '창조적 책읽기, 소셜리딩'을 통해 책 읽기 필요성에 대한 재조명

이 강연은 교보문고독서경영연구소 송영숙 소장의 강연으로, 현대 한국 사회 구성원 중 직장인들의 독서 현황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송영숙 소장은 평균 한달에 책을 한 권보다 조금 더 읽는 한국 직장인들의 독서 현황은 한달에 책을 서너권 읽는 독서 선진국 사람들의 그것보다 뒤쳐진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책을 더 제대로 읽을 수 있는, 하루에 30분 독서에 투자함으로써 일년에 30권의 책을 읽는 캠페인을 소개하며 책을 제대로 읽어야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먼저 송영숙 소장은 독서를 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철학자 데카르트의 명언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의 가장 뛰어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하며 독서라는 것은 단순히 그 책의 내용을 알고 이해하는 것만이 아닌, 그 책의 내용의 기반이되는 저자의 사상과 생각들을 알고 이해함으로써 독자 스스로 성찰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명언을 설명한 이후에, 송영숙 소장은 본인의 일화를 바탕으로 독서를 통해 성찰과 깨달음을 얻는 예를 보여주는데, 다산 정약용과 제자 황상의 이야기인 ‘삶을 바꾼 만남’이란 책을 읽고 자신이 느낀점을 이야기 합니다. 이 일화에서 송영숙 소장은, 책의 인물에 자기 자신을 투영하여 비교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객관적인 시선으로 자신의 문제점과 고칠 부분을 깨닫고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독서를 하기 위한 또 다른 이유로, 송영숙 소장은 공감과 소통을 제시합니다. 송영숙 소장은 공감과 소통이 현대 한국사회의 문제가 되어 사람들이 서로 공감이나 소통을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독서를 제시합니다. 독서가 앞서 언급한, 과거의 뛰어난 사람, 즉 좋은 책을 쓴 저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아 저자의 생각을 이해하고, 따라서 저자와 공감할 수 있으므로 소통 능력이 가능해지고, 또한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확장되어 주변의 타인들과도 공감과 소통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독서라고 설명합니다.



송영숙 소장은 독서를 해야하는 이유로 사고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연결합니다. 독서를 방해하는 매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들은 주로 보이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매체로, 책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해야 하는 통찰력이 필요한 독서처럼 사고력을 키우지 못하고 오히려 사고방식을 제한시키며 사고력을 저하시킨다고 설명합니다.

독서를 해야하는 마지막 이유로 지식을 넓히는 것이 제시되었습니다. 송영숙 소장은 독서를 함으로써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 중요한 이슈나 뉴스 등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개인의 발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와 지식을 늘리는 것은 어느 단체, 나아가 기업 또한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하며 독서를 해야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 강연을 들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독서를 더욱 열심히, 진지하게 했다면 지금의 나는 또 어떤 모습이었을 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강연자가 독서를 해야하는 이유는 비단 직장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학생들이 가진 문제점들과도 아주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독서를 통해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과정을 가졌다면, 현재의 나보다 훨씬 나은 모습의 내가 가능했을 것 같다는 고민을 하며 제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독서를 해야하는 이유 중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소통과 공감의 문제였습니다. 보통 지식이 있더라도 이를 전달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능력이 부족하여 결국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볼거리가 가득하고, 즐길 것이 너무 많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왜 독서를 해야 하는지, 읽는 행위와 그것의 확장이 왜 필요한지 고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강연이었습니다.

Lim Taekyung-12T

현대 사회에서 'Reading'의 가치와 중요성

